

내달 12일 '마지막 삼성고시'...전국 10만여명 응시

전남대·조선대 스터디 20개 비장한 취업준비생들 총력전

인터넷 강의에 '학원 유행'도

광주지역 2000명 응시 예상

삼성그룹 신입사원 공개 채용의 1차 관련 문인 '삼성직무능력검사전(SSAT·Samsung Aptitude Test)을 앞두고 취업준비생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 '삼성고시'(考試)로 불리는 이번 SSAT는 학점 3.0 이상(4.5만점 기준), 일정 수준의 영어회화 시험 점수만 있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

하반기부터는 채용 제도 개편으로 '직무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사람만 SSAT를 치를 수 있는 탓에 10만명이 넘게 몰려오는 예년보다 응시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 시험...준비 열기 뜨거워=전남대 대학원 화학공학과 석사과정인 김효린(여·25)씨는 SSAT 한 달 전, 'D-30일'을 달력에 표시한 뒤 스터디생들을 모집해 매일 오후 7시 학교에서 3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다. 전남대·조선대 등 대학가에 울어들어 SSAT만을 겨냥해 만들어진 스터디만 20개에 이른다. 대부분 SSAT에 응시 역량이 있는 대학 4학년 2학기 이상 취업준비생들로, 다양한 문제 유형을 고려해 스터디생들을 인문계 3명, 이공계 3명 등으로 적절한 배분하는 전략까지 이뤄지고 있다.

스터디를 하는 구직자들에게는 SSAT를 2~3번 치른 '장수생' 뿐 아니라 신입생 때부터 SSAT 스터디만 10개 넘게 활동해온 취업준비생도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매일 언어논리·수리논리·추리·

시각적 사고·상식 과목으로 구성된 문제 160개를 실제 시험시간인 140분 동안 푸는 모의고사를 반복하며 시험을 준비중이다.

채용정보 사이트 '사람인'이 취업준비생 1442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13.8%(198명·1위)가 '취업하고 싶은 대기업'으로 삼성전자를 꼽았다.

그만큼 다음달 12일 치러지는 SSAT에 응시하는 광주 지역 취업준비생들도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준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못지않다.

◇SSAT 준비 위해 서울 유학도=지역 취업 준비생들의 경우 인·적성 검사 대비 강화를 진행하는 대형 학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들어 서울 학원을 찾아 '상경'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SSAT와 관련된 인터넷 강의 사이트만 17개, 강자는 100여 개, 교재도 3077권에 달한다.

한 강의당 수강료도 8~12만원에 달해 취업준비생들은 2~3명이 나눠 돈을 내며 함께 수강하는 '품앗이'까지 진행되는 실정이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SSAT 전형일을 앞두고 대비 모의고사를 제공하는 등 대학들도 마지막 시험을 앞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지원 전략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전남대 융합인재교육원 관계자는 "지난해 삼성그룹 계열사 대부분이 취업설명회와 채용상담을 왔었는데, 올해는 채용 전형이 바뀌는 탓인지 삼성SDI와 삼성생명 2곳만이 채용상담을 해 많은 학생들이 아쉬워했다"고 말했다.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매일 생수 나르기 전쟁...목욕탕 찾아 10km 원정

■ '휴탕 수도물' 나주 혁신도시 가보니

대책반 음용중단 권고...급수차 505t·생수 48만병 공급
시행사·수자원공 원인 이견 속 내일까지 전체 관로 세척



지난 27일 오전 나주 빗가람 혁신도시 LH 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 앞에 입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생수가 쌓여있다.

"사워하려고 거의 매일 10km 떨어진 나주시내 목욕탕까지 가고 있는데, 원인조차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 27일 빗가람 혁신도시 LH(한국도지주택공사) 아파트 1단지에서 만난 주민 유모(여·40)씨는 생수(1.8ℓ) 12병을 힘겹게 옮기며 이렇게 말했다. 10살과 5살, 2살 바깥 자녀를 둔 유씨는 지난달 26일 이후 매일 오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생수를 옮기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나주 혁신도시 내 이물질 수도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후 잠잠해지는 듯했던 '휴탕물 수도물 사태'가 지난 20일 또다시 발생했다. 혁신도시 시행사(LH,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한 달 가까이 주민들에게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나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 LH 아파트에서 휴탕물이 나오고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으로, 관련 기관 등의 수질 검사 결과, 일부 단지에서 수도물의 탁도가 기준치(0.5NTU이하)의 4배(2.17NTU)를 넘어선 것으로 측정됐다.

대책반은 혁신도시 전 지역 내 2582 입주세대, 기관 13곳, 학교 3곳, 유치원 1곳 등을 대상으로 음용 중단을 권고했고 주민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했다. 27일 현재

급수차 505t, 생수(1.8ℓ) 48만5000병 등이 공급되는 등 비용만 3억3500만원에 달한다. 주민 상당수는 "한 달 가까이 수도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생수를 쓰거나 인근 목욕탕을 찾아 샤워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떻게 원인조차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토해냈다.

LH·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 등 시행 3사도 안전부절이다. 정확한 원인이 나와야 대책을 세우고 책임을 물겠는데, 서로 '동상이몽'식 추정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행사측은 "지난 설 연휴 3일 동안의 평균 수도물 사용량(1000t)이 연휴가 끝난 뒤 갑자기 3000t으로 급증하고 신설된 인근 다도배수지 수용량(1만2000t)에 못 미치는 수도물(2000~2500t)이 사용되면서 물 흐름이 정체돼 탁수가 발생한 것"으로 조짐스럽게 추정했다. 물을 공급하는 수자원공사는 "다도배수지는 현재 5000t을 수용하고 있으며 수질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반발한다. 수자원공사측은 "일단 사태 수습부터 한 뒤 합동조사 원인 규명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시행사측은 31일까지 혁신도시 내 전체 관로(53km)에 대한 탁수 배출과 세척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는 2일 나오는 수질분석 결과를 토대로 음용수 공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주=백희준기자 bhj@

배보다 배꼽이 큰 소송한 이유는?

보험료 39만원 일방적 할증에 운전자 수백만원 들여 승소

자동차 운전자 손해배상 청구액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 선임료를 내며 소송에 나서 승소했다. 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배보다 배꼽이 큰' 소송을 제기한 데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할증한 보험사의 횡포를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5일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 대해 연간 보험료 61만4990원을 내고 K손해보험회사와 1년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계약 기간 동안 모두 두 차례의 물적 사고로 보험 처리를 했다. 두 건을 모두 합쳐도 계약 체결 당시 안내받은 물적 할증 기준금액(200만원)에 못 미친 34만3000원 수준이었다.

A씨는 그러나 1년 뒤 계약 갱신 과정에서 보험료가 할증돼 97만567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해 보험사가 할증하지 않을 경우 A씨에게 적용될 보험료는 57만9350원이었다.

A씨는 할증 기준과 관련, 사고 처리 횟수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추가 부담하게 된 39만6320

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고 최근 승소했다. 재판부는 보험료 할증 기준은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자 설명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손해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 21 단속 양동학 판사는 "보험료 산출 관련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으로 설명 의무 대상이다"면서 "보험료 할증 관련 사항 역시 설명 의무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지역 변호사 업계의 일반적인 선임료 기준액이 건당 33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A씨는 손해배상 청구액보다 많은 선임료를 내면서까지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A씨처럼 사고 처리 횟수로 인한 보험료 할증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손해 보험사 기준에 따라 할증료를 부담했던 보험 계약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지 않겠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공무원·군인, 성범죄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 퇴직'

정부 근절대책 추진키로

정부 부처나 군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과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수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급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키로 했다.

다만, 당연 퇴직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벌금형 전체로 할지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하는지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연식 변조' 전세버스회사 관계자 실형 선고 법정구속

출고 연도(연식)를 변조, 최근에 출고된 버스인 것처럼 속인 전세 버스회사 관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8단속 이태경 판사는 29일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에 필요한 관광 버스 용역계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차량등록증의 출고 연식을 고쳐 학교측에 제출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기소된 A(여·52)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징벌 유예 기간 중임에도, 교육기관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후차량을 수학여행 등

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하고 행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전세버스 노후화 또는 정비불량 등으로 연결돼 대형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29일 전세버스 자동차 등록증에 적힌 차량 연식 숫자 '2003' 위에 '2007'을, 차량 만료일을 나타내는 숫자 '2012' 위에 '2016'을 오려붙여 복사한 뒤 여수 지역 초등학교 교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신축 4층건물)
룸12개, 올 대리석시공, 신축 (1침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목포 옹해동 전집주택 매매
옹해동 교회앞 금호아파트 사이
대지310평 전주택 2채, 무화과나무 있음

매매가 3억 (용 1억 2천)

① 전대정문 1분코너 룸12개 룸20개 (1층 상가 2개) 월 700만, 매매가 7억 8천	④ 전대상대 2분 룸11개 4층 주택 월수익 400만 매매가 6억 5천
② 용봉동 용봉지구 미래도 A 코너 룸 19개 (1층상가, 4층 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대지 105평 월수익 900만, 매매가 11억	⑤ 동신대 후문 2분 룸 18개 (1층 상가) 주인세대 4층 매매가 10억
③ 동구 대인동 고사원 룸 72개 월수익 1천2백 매매가 21억	⑥ 생촌동 원룸 1개 (운천역2분) 매매가 4천8백

(주)대신 062)527-76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북구 우산동 7층건물 (올수리)
월수익 900만
(주인 직접 운영시 월 1,800만 수익 발생)
매매가 13억 (보 1억, 용 6억)

목포 옹해동 전원주택 매매
(일라부지) 도로2차선연
바닷가5분 무화과나무 식재됨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매매가 3억 2천

추천물건

① 동구 충장로 상가 5층 학원건물 동부경찰서 앞, 매매가 15억	③ 나주시 삼영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 앞 1층 6칸, 2층 4칸 매매가 3억 2천
② 서구 상무지구 정면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 2천	④ 수원지구 모이말/113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 5천 매매가 3억 5천
⑤ 수원지구 3층 롯데마트 옆 4층중 3층 62평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 5천	⑥ 서구 상무지구 수림6층 15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4천8백
⑦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1천8백, 매매가 20억	

(주)대신 010-6670-9800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5층 학원)

평수 100평 (전용 80평)
이면도로코너
학원리모델링 함
주차 4대 무료 확보(주위 200대)
중심 상무지구에서 저렴함
보 3천, 월 130만

나주 상가

2층건물 매매

① 영신중, 고교 앞, 영강 초교 앞
② 대덕 APT 유동인구 많음
③ 대지 210평 (1층 6칸)
④ 건물(2층2칸), 학원적함

매매가 2억 8천

010-6670-9800

(주)대신경매

시선집중 근린시설/근린주택 (수익성 상가)

★펜션부지 및 체험학습장 (토 30,308㎡, 건물 2,916㎡) 감평가 27억8천, 최저가 9억9천

① 야수시 총무동 (토 234㎡, 건물 810㎡) 감평가 7억9천, 최저가 4억4천

② 서구 생촌동 (토 221㎡, 건물 458㎡) 감평가 4억6천, 최저가 3억7천 (투자적함)

③ 북구 일곡동 (토 9,600㎡, 건물 250㎡) 감평가 41억, 최저가 41억 (배차장, 공업사, 특A급)

④ 북구 매곡동 (토 1,660㎡, 건물 1,317㎡) 감평가 15억9천, 최저가 15억9천 (스포츠센터)

⑤ 동구 충장동 (토 155.4㎡, 건물 628㎡) 감평가 5억6천, 최저가 3억9천 (문화의전당)

※ 화순군 화순읍 (토 7,385㎡, 건물 4,762㎡) 감평가 77억, 최저가 54억

⑥ 상가건물 2층 → 담양군 금성면 (펜션, 식당 시설) 감평가 27억~99억9천

⑦ 상가건물 4층 → 여수시 교동 (사내중상지역) 감평가 13억4천~10억7천

근린 상가

① 북구 오룡동 (토 102㎡, 건물 107㎡) 감평가 1억5천, 최저가 8천7백

② 순천시 장천동 (토 423㎡, 건물 1,138㎡) 감평가 10억, 최저가 5억7천

③ 광주 남구 봉선동 (대 38㎡, 건물 61㎡) 감평가 3억8천, 최저가 3억8천

④ 광주 서구 금호동 (대 180㎡, 건물 295㎡) 감평가 6억9천, 최저가 3억6천

⑤ 광주 남구 봉선동 (대 173㎡, 건물 589㎡) 감평가 9억4천, 최저가 2억1천

⑥ 광주 남구 노대동 (대 703㎡, 건물 279㎡) 감평가 4억9천, 최저가 3억4천

주요소

① 서구 미륵동 (토 1,132㎡, 건물 278㎡) 감평가 9억9천, 최저가 6억9천7백

② 남구 인촌동 감평가 7억, 최저가 4억9천

③ 광안구 북동동 감평가 8억8천, 최저가 8억9천

토 지

① 북구 청동동 (토 11,150㎡) 감평가 1억천, 최저가 7천5백

② 남구 봉선동 (대 417㎡) 감평가 1억4천8백, 최저가 9천5백

010-6670-9800 / 062)382-5500

경매학원 (기본+실전)

이제 경매는 대중화시대
(매주 초 개강)

경매교육

(기초부터 ~ 실전개발까지)

① 오전반 (화요일) 9시30분 ~ 12시
② 오후반 (화요일) 7시 ~ 9시
③ 주말반 (특별반) → 상담가능

엔피엘교육 (부실채권)

2개월 총강

★ 3월 23일(월요일) 첫 개강 ★

① 오후 (월요일) 7시 ~ 9시까지
② 집중 엔피엘교육 (기초부터 실전까지)

※ 경매 실전 위주반 모집(기본 + 실전) 1년

010-6832-9700
010-2699-5300